

2026 국악창작곡개발 - 제20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 심사 결과 안내

<2026 국악창작곡개발-제20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6월 25일(목)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선 경연대회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회에 참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26년 6월 25일(목) 19:00 / 국립국악원 예약당
- 심사내용 : 본선에 진출한 10곡의 국악 창작곡 실연 심사
- 심사위원 (*가나다순)

번호	이름	주요 프로필
1	권진원 (심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가수 •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및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MBC 강변가요제 은상 수상
2	김성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객원지휘자 •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장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역임
3	김준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수석, 지도단원 및 정악단 단원 역임 • 국가무형유산 중요제례악 이수자 및 가사 전수자
4	서재현(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제12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수상 • JTBC <풍류대장 -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최종 우승 • 2019 제11회 대한민국 대학 국악제 대상 수상 외
5	유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월드뮤직 앙상블 '이도(YIDO)' 음악감독 및 대표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장 겸 예술감독 역임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 역임
6	윤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곡가, 프로듀서 • 뮤지컬 <서편제> 음악감독 •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 작곡작사상 수상 외
7	정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립창극단 단원 • KBS 국악대상 대상 및 판소리상 수상 • 제32회 임방울국악제 명창부 대상 수상 외

- 심사항목: 대중성(30%), 음악의 완성도(30%), 독창성과 창의성(20%), 국악적 요소의 반영(20%)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으로 상·하한 점수 규정

- 팀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
- 심사회피제도 시행

□ 심사결과

구분	팀명	곡명	시상내역
대상	개호주 밴드	장기블루스	대통령상, 상금 1 천 5 백만원
금상	적감(積感)	Binaryy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8 백만원
은상	이사이	감돌아든다	국립국악원장상, 상금 5 백만원
은상	비랑(飛浪)	적토마(赤兎馬)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5 백만원
동상	조선버전	청흔(靑痕)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 백만원
동상	판도라(PANDORA)	마키아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 백만원
장려상	하모에	Black Wave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장려상	B-error(삐에로)	박-error (박이 고장났다)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장려상	염경관	권마성(勸馬聲)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장려상	포짓(4jit)	허튼짓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 주요 심사평

이름 (가나다순)	주요 심사평
권진원 (심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전통 음악의 뿌리를 잘 간직하며, 새로운 소리와 새로운 음악을 창작해 내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탁월한 실력으로 연주와 노래를 진행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과 색채가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멋진 음악 잘 들었습니다.
김성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과 내용이 다양한 무대였습니다. 국악의 본질을 유지하고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무대를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람 있다면 조금 더 도발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팀의 출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뜨거운 무대를 펼쳐주신 10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에너지와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한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다양한 맛과 멋과 흥을 만들어 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로 20회를 맞은 <21c 한국음악프로젝트>의 무대가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음악의 미래를 여는 여러분들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대회는 연주자들의 전체적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객석에서 연주를 듣는 맛이 있었습니다. 시작의 단계에 서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21c한국음악프로젝트>라는 대회의 이름처럼 21세기의 '한국음악'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통 악기의 새로운 연주나 어법 등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만의 음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완성도가 높은 음악들은 이 시대의 다양한 음악을 위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멋진 음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p style="text-align: center;">류경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음악의 어법과 미학적 자산을 현대적 감수성으로 재해석하려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전통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려는 진지한 탐구의 흔적들이 작품에 잘 드러났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전통과 현대의 접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단순한 차용을 넘어 이질적인 요소들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시도가 더욱 요구 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윤일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우리 소리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화'가 탄생한 무대들이었습니다. <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음악계에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참가자분들의 음악적 열정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들의 땀이 비로소 우리나라 전체 음악계가 걸어가는 길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팀은 흥겹고, 어떤 팀은 심각하지만 예술성이 넘치고, 또 어떤 팀은 무모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도전이 빛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은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적 구성과 악기 구성이 다채로운 팀과 음악적 철학과 주제, 사회적인 음악적 기능, 동시대적 트렌디함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서의 출발이라 생각하며 기본적인 연주 테크닉도 고려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꺼내보려는 성장 과정의 시도는 좋았으나 <21c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좀 더 새로운 시도적 음악 접근, 기존에 나온 음악들과의 변별성의 두드러짐이 없었다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과 앞으로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해체하고 더 재창조되어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의 :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4, 21cproject@igbf.kr)